

自我同一性에 대한 論評(1)

申 龜 鉉

(嶺南大)

현대철학에서 自我同一性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탐구되고 있다. 하나는 英美哲學의 主流을 이루는 실증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구라파대륙 철학의 主流을 이루었던 실존주의이다. 이 두 입장은 자기 독자적인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가지고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탐구한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그것을 단순히 객관적인 관찰의 대상으로 파악하려 하는 반면 실존주의는 선형적으로 내지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이 두 입장은 자아동일성을 진정한 의미에서 파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르트르나 하이데거가 이미 지적했듯이 동일성을 지닌 자기(soi)나 本來的인 自我(eigentliches Ich)로 존재하지 않고 物化된 自我(ego)나 非本來的인 自我로 存在하며 이러한 自我에서 동일성을 지닌 자기나 本來的인 自我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心身同一性이나 자아와 자기의 존재론적 차이점을 분석 해명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三人稱的인 대상으로서의 心身을 一人稱的인 인격의 주제로, 자아를 자기로 번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해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실증주의나 실존주의의 자아동일성이론의 한계성이 露呈되며 이 限界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제발표자는 데카르트 이후의 자아동일성에 관한 이론을 철학사적으로 巨視的인 관점에서 照明하면서 類型論的 分析과 비판을 수행하고 唯識佛敎의 현상학적 실천론에서 자아동일성이론의 새로운 모형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이리하여 그는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자아가 무엇인가를 이미 아는 것으로 저제하고 이 자아가 時空의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동일성을 유지하는가라는

인식론적인 존재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의 존재론적 身分을 묻는 존재규정의 문제로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함께 一人稱的인 방법인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기나 본래적인 자아의 構成을 해명하는데 논술의 초점을 둔다.

이렇게 하면서 주제발표자는 자아동일성이론을 1. 데카르트의 실체론 2. 로크의 意識存在說, 3. 흄의 現象論, 4. 사르트르-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존재론, 5. 唯識佛敎의 현상학적 실천론의 다섯가지 대표적인 유형으로 구분하고 데카르트, 록크, 흄의 이론을 데카르트주의로, 사르트르, 하이데거, 唯識佛敎의 이론을 다시 현상학적 자아론으로 大別한 다음 이 현상학적 자아론을 통해 데카르트주의를 극복하고 또 현상학적 존재론을 유식불교의 실천론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발표는 고전적인 자아동일성 이론의 한계성을 비판하고 극복하려 노력한 점, 실증주의의 입장을 배제하고 현상학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 새로운 이론모형의 設定 등에 많은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론내용은 전개하지 않고 다만 연구방향의 제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의 討論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여지며 거기에는 아직 보완이나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 중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한다.

1. 흄의 자아동일성이론을 데카르트주의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주제발표자는 흄의 자아동일성의 문제를 데카르트적 二元論의 입장에서 서서 <마음>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의 자아론을 데카르트주의 계보에 귀속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二元論과 데카르트주의는 결코 외연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처럼 心身을 동등한 두 實體로 보지 않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실제로 인정하고 다른 하나를 假象이나 現象으로만 보는 플라톤적인 二元論이나 epiphenomenalism과 같은 二元論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데카르트주의는 二元論의 한 특수한 유형일 뿐이다. 만일 우리가 흄의 자아동일성이론이 心身 二元論에서 출발한다는 이유로 데카르트주의에 귀속시킨다면 그 결과는 실체론과 현상론을 동일한 이론유형으로 취급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동일성에 관한 이론유형을 너무 무리하게 체계화 하려는데서 유래하는

것 같다.

2. 주체발표자는 唯識佛敎의 현상학적 실천론을 자아동일성이론의 最適正模型으로 설정한다. 이것은 하나의 例示에 불과하며 儒敎의 心性論이나 實踐修養論, 혹은 다른 어떤 종교적이거나 윤리적인 心性論이나 實踐修養論도 유식불교와 같은 모형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실천론을 데카르트, 로크, 흄,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의 자아동일성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상적인 분석론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칸트가 이미 밝힌 바와같이 이론과 실천은 상이한 영역에 속하며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양자 사이에 철학과 윤리 및 종교의 분기점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론과 실천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때 이들 양자간의 한계성과 상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영역의 혼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자아동일성이론의 모형설정에 있어서 독일관념론의 자아론을 제외함이 아쉽다. 일반적으로 어떤 모형설정을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모형들 중에 대표적인 것만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서양근세 이후의 철학사에서 자아론을 概觀한다면 독일관념론 만큼 그 문제를 철학의 主題로 다룬 다른 사상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칸트의 선형철학의 토대를 이루는 선형적 統覺으로서의 자아, 피히테의 주관적 관념론이 말하는 非我를 정립하는 자아나 혹은 이 양자에 선행하는 절대적 자아, 자연과 정신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셸링의 同一哲學에 있어서의 범신론적 자아 등은 독일관념론의 根幹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自我論에서 우리는 “先驗的 自我論”이란 하나의 유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실체론, 현상론, 현상학적 존재론에 못지 않는 대표적인 모형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4. 동일성이란 개념은 다양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로크는 불체적 동일성, 식물적 동일성, 동물적 동일성, 인간적 동일성, 자아의 동일성으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동일성이란 개념이 지시하는 내용도 달라지게 된다. 즉 불체적 동일성은 質量的의 동일성, 식물, 동물, 인간적 동일성은 생명의 동일성, 자아의 동일성은 의식의 동일성을 지칭한다. 또한 흄은 동일성을 數的

동일성과 類的 동일성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하나의 지각내용이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동일성을, 후자는 두 개의 지각내용이 상호유사성을 가졌을 때의 동일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실체론이 의미하는 동일성은 분명히 同時・同延의 同一性, 즉 흄이 말하는 수적 동일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는 동일성이란 개념을 자아의 존재에 대해서만 사용하며, 事物에 대해서는 동등성(gleichheit)이나 즉자적 동일성(identité)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와같이 동일성이란 개념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에 따라 多意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제가 다루는 자아동일성, 특히 유식불교의 실천론에 있어서의 동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규정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유식불교의 현상학적 실천론은 실천 수양을 통한 자아동일성의 규정과 파악을 위한 이론 모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무엇보다 실천수양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제시와 설명이 요구된다.

그러나 주제발표에서는 紙面의 제약 때문이었는지 意識段階의 구별에 그쳤기 때문에 실천수양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의 설명이 보충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유교에서는 大學의 格・致・誠・正, 中庸의 戒愼恐懼, 論語의 克己復禮 등을 유교적인 실천수양의 절차로 삼고 있다. 불교에서도 이와 類似的한 절차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밝혀져야만 추상적인 이론의 限界性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다.